

지역 어르신 위한 토탈 서비스

행복법당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과 부의 분배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많이 갖는 것을 행복한 삶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무소유'와 '버리고 떠나기'를 한 평생 실천 하였던 법정 큰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빛나는 이유이다.

복지(福祉)란 '행복한 삶'을 말한다. 좀 더 말하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크든 작든 갖는 것에 만족함을 느끼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복지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최적의 공간이자, 포교의 장이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이 있는 곳은 광주에서도 가장 낙후된 관산구의 우산동이다. 송광복지관은 아직 복지관이라는 명칭이 낯설었던 시대인 지난 93년 관산구에 첫 출발을 하였다. 현재 광주에서 가장 오래되면서 가장 큰 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다.

대지 400평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마련된 복지관에는 소강당, 노인무료급식소, 미용실, 푸드마켓, 자활사업장, 어린이집, 사회복귀시설, 노인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나눔드리 도서관, 방과후 공부방, 정보화교육실 등이 마련되어 매일 25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한다.

송광복지관 주변에는 작은 펍수의 주공아파트가 많이 있다. 이곳의 주민들의 상당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일까 복지관 특화사업에는 늘 △거동불편 어르신 식사 배달사업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노인일자리사업 '우리 동네 환경개선사업' △지역사회 방임아동 야간 돌봄 사업 '나이트케어' 등이 진행된다.

복지관에는 늘 어르신들이 북적인다. 매일 점심시간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식사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식사 배달사업이 진행되고, 연로하여 집안 수리를 할 수 없는 어르신에게는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다. 여기에 일상생활의 섬세한 복지를 말하는 재가복지서비스에 세탁지원, 장애인목욕, 이미용, 가사지원, 차량지원, 의료지원, 자비의 선물나눔기, 감정지원 등 다양하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기체조 운동을 하며 행복을 쌓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광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관산구지역 내 남은 식품 및 기부물품을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비밀코리아, 호남사니, 세방전지 구내식당, 시루연, 관산구내 학교 급식소 등에서 귀중한 식품품을 제공해 주고 있다.

"아직까지 사찰이나 불교단체서 자원봉사나 물품기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업체와 관공서에서 참여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사찰과 복지관이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해 나아가야 할 일을 만들도록 해야지요."

송광복지관 사무실에서 복지관 현황을 설명해준 김영춘 부장의 말이다. 가장 불교적 실천이 가능한 곳인 복지관에 불자들의 발길이 가장 없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관을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이야기였다.

"어디 단체든 재정확보는 큰 화두일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이 작아지는 요즘은 불

들의 도움이 더욱 절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화두에 맞는 실천으로 복지관에서는 처음 후원행사를 마련한다. 바로 12월 29일 열리는 '후원의 밤' 행사이다.

복지관은 행복을 주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곳이 될 수는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행복은 만족이다. 만족 이외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가져와 보라." (062)941-824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종합복지관장 도제 스님 인터뷰



"저는 복지관에 다니기만 합니다. 스님이 복지관에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겠어요?"

도제 스님은 복지관에 매일 출근한다. 차로 5분 여 거리에 있는 작은 사찰 길상사 주지 소임을 시작하면서 복지관 관장을 같이 맡게 되었다.

이런 도제 스님을 만나는 건 무척 힘들다. 시간 약속을 하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이다. 너무나 바쁜 스님이기 때문이다. 스님의 직함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다. 최근 조계종 전법단 광주전남지방장 소임을 비롯해, 동원 광주전남지방장, 파라마리 광주지부에서 지역 포교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스님은 매일 복지관에 출근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어르신 만나기를 빼먹지 않는다.

"저는 사실 어린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저희 복지관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 나이트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낯설어 했는데, 이제는 장난도 하고 지내요"

이렇게 스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스님은 "정부예산은 40%만 있고,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한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며 "사찰과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와 후원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했다.

스님은 최근 조계종에서 추진하는 전법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전국 6개의 광역시에 추진되는 전법단은 지난 10월 6일 광주전남전법단을 출범한 이래 2011년 3월 2일 광주전남전법단 포교결집대회 및 음악회 개최 등 세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출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출가를 할 경우 그 순간부터 부모님은 볼 수 없는 건가요?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지요?

또 가부좌를 할 수 없으면 출가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출가할 때는 문제 없었지만 출가생활을 하면서 사고로 가부좌 등을 못하거나 다른 신체적인 이상이 생기면 종단에서 나가야 하나요?

A 상담자께서는 출가를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출가의 길이 어려운 길이란 것은 상담자께서도 짐작하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출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세속과의 인연을 정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 친지 등과의 끈끈한 사람의 감정을 거둬 들여야 합니다.

그런 굳은 각오가 없이는 불가에 입문할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에 끌리는 그런 감정들을 갖고 불문에 귀의하면 불가에서의 수행이 조금만 힘들어도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 전에 본인이 왜 수행자가 되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성

그런 마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부모님과 돈 문제로 싸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돈 관리에 관해 의심이 많으십니다. 아버지께서 결혼 저금을 모으라 하셔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믿고 맡기시면 될 텐데 통장을 만들었는데 확인하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일일이 확인하시더군요. 순간 너무 짜증나서 신경질을 내고 말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아버지와 이혼한 친어머니가 강연도에 홀로 계시며 어머니께 돈을 부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짐작했는지 나가서 죽든 살든 거지가 되든 이제 마음대로 하라고 막말까지 하십니다.

인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제 방에 작은 불상을 모시고 향을 매일 피웁니다. 불상 위에 부처님 사진을 붙여도 되는지 여쭙고 싶네요.

A 아버지가 상담자를 믿어주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나에 대

출가는 굳은 각오 있어야 부자 관계는 대화로 푸세요

찰을 하고 출가를 해야 합니다.

출가를 하면 처음에는 부모님과의 상봉을 멀리 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사미계를 받고, 강원에서 4년간 교육을 마친 후 비구계를 수지하여, 스님으로서의 자질과 신심이 갖추어지면 그때에는 오히려 가족들을 부처님 법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이 가능해 집니다.

그때 가면 본인 스스로 가족과의 만남에 있어 자제와 허용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가부좌가 잘 안돼 수행을 못하시는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으시군요.

불가에 입문하여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게 되면 꼭 가부좌 자세가 아 니더라도 수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종단에서 꼭 나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정진하면서 포교를 위해 애쓰시는 스님들도 계십니다.

한 정보를 줘야 이해 받고, 지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해보세요.

예로부터 "자기의 사랑은 자기 자신이 하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부처님 상이나 부처님 사진은 점안을 하지 않은 것은 장식물에 불과하므로 사진을 붙여도 무방합니다. 상담자께서 방에 부처님을 장식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니 환경을 더 나아가 부처님을 모신 곳에서 매일 108배 기도를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08배 기도를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24시간 자비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24.org
청소사사이버 상담팀 아하엑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새로운 도법 지구촌에서 가장 빠른 생명에 문을찾아 선지식들에 모든법을 이어 받아 육경신수행으로 해안 심안 불안 도안 법안 천안 도통으로 현장 법사와 손오공 능력을 얻어 무궁조화로 모든중생을 구제하는 경인년 루진통 대법회

천하대도 자성에 운은 말과 글과 참선 및 그 어떠한 수행으로는 생명에 문을 찾지 못하고 수많은 세월과 목을 매는 진광대도 우주와 내가 하나되는 문에 그대를 초대합니다

- ◆경신도통이란 멸하지 않는 영적부모인 것이고 인간의 수행으로는 몸에 붙은 신을 떼지 못하고 자손으로 내려 가지 않고 자기대에서만 부리는 도법을 받는 날이 천년에 한번드는 신묘년 2011년 1월 4일 ~ 5일 경신일 자신이 도통하는 성불 받는 날이다.
- ◆특별 금년 음 경인년은 천, 복 대운의 해이므로 결혼과 가정과 직장 및 수행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사업마장, 결혼마장 되는 것은 자기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삼상의 죄업을 벗고 악한운과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뒤편 조상님들이 본인에게만 열어주고 선행대운으로 자식에게 안기는 행운을 열어 운명을 바꾸는 것이며 2011년 1월 4일 ~ 5일 경신일부터 지구촌 새로운 유불선이 하나되는 법도이므로 이 기도로 하늘 땅 모든 대운을 받아 지금까지는 과거 지나간 일들만 말하는 것을 미래에 도착오는 운명과 길흉과 철학 정술예언 예측하는 루진통 수행으로 천지와 복덕이 합하고 일월과 밝음이 합하고 귀신과 길흉을 합하고 사시 오행이 합하고 육감음향과 세월 일시가 합하는 성스러운 대운을 받아 잠심 마장을 소멸 하는날 이므로 하늘과 땅은 사사로움이 없는 경신수행자에게 이 법을 주위 자신에 보람하는 법을 얻는 천장지법인 것이고 관심법으로 많이 안 배워도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운명과 건강 출세 신비의 명리철학 오행철학 성명철학 풍수철학 동양철학 등 팔신공 도천명으로서지나날만 맞추던것을 즉시 도통 말문이 열리는 도법을 성불받아 일체를 관리하는 도통 군자로 사단법인 자격증을 얻어 철학원과 포교원을 경영하여 평생직업에 구애 받지 않는 자격을 얻어 거부장자되는 루진통 도통법 대법회

천지공사 육경신도통이란? 천하의 비밀법에 자신이 운명을 비껴갈 수 있는 영포로 임장 소멸하여 자신이 운명을 조종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도통법 인 것이며 천지공사인 것이다.



◆천지공사 경신도통으로 타심통을 열어 상통천문하달리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고,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도천명을 득도하는 육경신 도통만이 유효되는 전염병과 그 어떠한 병도 다스리는 의통 능력자인 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되어 중생에게 병이 된 영혼문을 열어 일체 병을 해탈 시키는 초능력으로 생명에 문을 찾는 루진통 대법회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해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문을 열고 정신과 신심의 문 육신의 문을 열어 운수 대를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건성도통으로 병업상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수십년 수행한 능력 보다 더 큰 능력을 얻는 도통법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교육원 부산특별시 금정구 장전3동 경문사 도량
상담전화 : 051)635-3110 / 010-8533-1601

- 입제 : 양력 2011년 1월 4일(음 12월 1일 화요일) (해시)
- 해제 : 양력 2011년 1월 5일(음 12월 2일 수요일) (해시)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광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웃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 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입구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용조미루달마 경신 도통회 **월드 세계불교 달마중 충 본산 환생태일 합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행복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